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익어가는 인생      성경: 창세기 47장 7-12절

Tag:

7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8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나냐

9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0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11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12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추수는 우리 인생에 많은 의미를 깨닫게 한다.

일단 추수는 노름이나 도박이 아니다. 짧게는 일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적어도 3년, 길게는 10년을 내다보면서 공을 들여야 추수를 통해서 열매를 거둔다.

마냥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결실하는 것도 아니다.

땅을 일구어야 한다. 거름을 주면서 옥토를 만들어야 한다. 제때에 씨를 뿌려야 한다. 잡초도 제거해 주어야 한다.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다. 결실할 때까지 항상 돌봐주어야 한다. 제때에 추수해야 한다. 탈곡을 하기까지 잘 말려야 하고, 탈곡한 다음에는 잘 보관해야 한다.

혹시라도 흉년이 들거나 흉수가 나면 농사는 망친다. 아무리 공을 들여도 소용이 없다. 요즘에는 스마트농법이 유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의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고 전문지식은 더 많이 공부해야 한

다.

올해는 아내가 옥상에 푸성귀를 심기 시작했다. 아침저녁으로 정성을 들였다. 이것저것 심었는데 고추와 싹 종류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벌레 좋은 일 시켰다. 이놈들은 어디에서 와서 싹 다 갇아 먹고 말았다. 그런데도 싱싱한 야채를 많이 내 주었다. 얼마나 신기하고 대견한지 모른다. 고기를 싹 먹기도 하고, 된장을 발라 먹기도 했다.

야채 몇 줌 때문에도 이렇게 뿌듯한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실까 짐작해 보았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기쁘시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실 것 같다.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인지, 노사연의 노랫가락이 갑자기 마음에 와 닿았다. ‘그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는 가사가 들려왔다. 이 가사 부분은 오평선씨가 쓴 책 제목이다.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한자말로 ‘성숙’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것을 과실이 익어가는 것으로 표현해서 더 긍정적인 의미를 부각시켰다.

30대를 넘어 40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부쩍 건강을 조심한다. 몸 아픈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체질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서서히 적응해 간다. 입에서는 좋지만 먹고 나면 건강에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선별하고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부러 몸에 필요한 음식들을 먹기도 한다. 이런 것도 익어가는 모습이다.

나이가 들면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다. 왜냐면 몸이 생각을 따라잡지 못한다. 젊어서는 몸이 먼저 반응하는데, 나이가 들면 몸은 천천히 마지못해 반응한다. 그러다 보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생각할수록 고쳐 생각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듣게 된다. 그만큼 시행착오도 줄어들고, 비용도 줄이게 된다. 이런 모습도 익어가는 과정이다.

나이가 들면 주도권이 서서히 줄어든다. 과거에는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비용을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내가 결정하고 자식들이 비용을 감당하는 부분이 늘어난다. 결국 핵심적인 것만 관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익숙하지 못한 부분의 몫만 내 것이 된다. 주도권이 없어지니, 명령하지 못하고 곁에서 거들고 조언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너무 심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잔소리로 취급당할까봐 조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도 익어가는 것이다.

과거에는 불쌍한 사람 보면 하나에서 열까지 도와주었다. 심지어는 세수까지 시켜준 적도 있다. 그런데 도움이 끊기면 바로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다. 이제는 필수적인 비용만 돕는다. 순종하면 돕는다. 행동하면 돕는다. 몸으로 돕는 것에서 립서비스로 바뀐 것이다. 필수적인 도움이 아니면 베풀지 않는다. 이런 것도 익어가는 것이다.

과거에는 열정적으로 공부했고, 배운 것을 열정적으로 가르쳤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잊혀졌고, 다시금 새로운 지식들이 더 많이 등장했다. 돈이 되지 않는 지식들은 사라져갔다. 교과서는 너무 얕은 지식에 불과하다. 지식의 세계는 거대했고 알면 알수록 더 거대하고 세밀하고 미스터리한 세계가 펼쳐진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지식의 틀이 바뀌게 된다. 요즘 과학계의 핫한 이슈는 양자역학이다. 반도체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학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원리가 불확정성의 원리이다. 단순히 확률로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설명했지만, 아인슈타인은 ‘아무도 보지 않으면 달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인가?’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서서히 과학도 익어가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그동안 과학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을 과학자들이 부러 모른척 했지만, 과학의 영역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초청해야 한다. 과학도 제대로 익어가야만 한다. 학문의 세계는 지금 막다른 낭떠러지에 다다

랐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나는 그것이 익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본문 9절에는 익어가는 인생에 대한 야곱 자신의 고백이 담겨 있다.

9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  
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바로왕 앞에서 겸손한 야곱의 모습이다.

130년 살았지만, 여전히 얼마 살지 못한 자와 같다는 뜻이다.

실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조상의 나그네 길에 비하면 한참 미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만큼 열심히 산 사람은 없지 싶다.

연약한 그는 장자의 권한이라도 얻을까 싶어 팔죽을 팔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헌신했다. 장장.

또, 4명의 처와 12명의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며 살았다.

그러나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제일 먼저 죽었고,  
그토록 헌신했던 장인으로부터 죽음을 무릎 쓰고 탈출해야만 했고,  
쌍둥이 친형에게 죽임당할까 두려워 압복강 가에서 천사와 목숨을 건 씨름을 해야 했다.

건달깡패 아들의 망나니 짓거리 때문에 온 가족이 초긴장 상태로 가나안으로 돌아왔으며

아들들에게 배신당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된다.

마지막에는 처절한 가뭄이 찾아와 두 번째로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들들에게 맡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험악한 상황 가운데 자신을 비롯한 일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전하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크나큰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다

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셈이다.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요, 구원의 여정이 었다.

왜 진작 아브라함을 통해 전해준 말씀, 이삭을 통해 전해준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 왜 그토록 오랜 세월을 슬픔에 싸여 지냈던가, 왜 모든 아들들을 사랑으로 감싸지 못했던가...

바로 앞에 선 야곱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사랑하는 야곱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섭리 앞에 만감이 교차하였다.

결국 자신을 이처럼 익어가는 인생으로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 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결국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는가?

<찬양예배>

제목 : 감사의 제목 찾기

성경: 시편 136편

Tag: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도 선해야 진정한 감사

-나도 인자해야 진정한 감사

-나도 영원히 변치 않아야 진정한 감사

2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  
다

-유일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3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뛰어나신 주님. 내 인생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

나를 지으신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이도 하나님

나의 나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4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창조주 하나님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

-여전히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

6 땅을 물 위에 떠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7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8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9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구원의 하나님.

11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2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4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5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16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훈련 시키시는 분

17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왕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분

18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로다

19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0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로다

21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  
원함이로다

22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  
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3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4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로다

25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  
136:1-26)

-높으신 하나님,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으신 분에게 감사하  
라.

-나중에 우리가 헤아릴 수 있으리라.



